

경이로운 하늘에 띄우 초현실적인 땅을 본다

Cover Story ▶ A18, 17면

04 다시,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여행

여기 이 땅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튀르키예(터키) 카파도키아는 하늘의 도시다. 육중한 바위와 위아래로 펼쳐 아래로 펼쳐져있는 열기구가 수없이 떠오르는 곳

맞는 말이다. 카파도키아 여행에서 하늘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이 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새벽 5시쯤, 짙은 검은 밤의 고요함에 허전할 정도로 모여든다. 열기구에 몸을 싣기 위해서다. 지평선이 보일 만큼 거대한 풍선들이 날아오를 무렵,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여행자를 땀겨운다.

본격적으로 튀어 드른 신세계가 펼쳐진다. 솟아올라 각양각색의 기암괴석이 밀도 없는 땅아 속에 피노키라처럼 이어진다. 주변에는 험악한 열기구가 하늘을 수놓아 영혼이 드라마에서 뿜던 그 모습 그대로의 장면을 연출한다.

카파도키아의 매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땅거위가 지면 여행자들은 다시 하늘이 열린다. 로즈볼라기 현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몰의 선물을 기다린다. 로즈볼라기는 해가 질 때 태양이 장엄으로 불타고있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들은 수백만 년 전 풍신 폭풍으로 생겨난 암석이다. 피라클에 걸치하면 시가인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 대강이 대지를 활달게 휘둘러 가면 위로 사라지는 모습은 초현실적 장면이다. 대강이 자취를 감추면 아포카립틱 달이 펼쳐 위로 서늘하게 피 오른다. 카파도키아의 노을에 매혹된 영혼들까지 튀르키스는 스다우즈의 우주 개척장에서 이를 끌어냈다.

말 위의 관광을 마쳤다면 이제 지대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다. 카파도키아에 가본 사람들은 언다. 도시의 영혼이 아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위세의 집착을 막아내고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곳 사람들은 지하에 도시를 지었다. 카파도키아의 경이로운 모든 빛은 열기우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카파도키아-길은 터키관광청에서 여행 가이드



Wave 가이드 & 스토리



튀르키예(터키) 카파도키아 공장은 계곡이 하나뿐인 이상한 공장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면 연결 통로를 찾거나 시골길을 뚫 필요도 없이 하나의 길을 따라 두터두터 걸어나오면 된다. 일국 철로도 소박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난다.

공장은 카파도키아 일대가 아사 두바이 한국 등 서브 다국 국제의 기차 운영이 보였다. 모처럼 열린 하늘길이 다들 만가운 눈치였다. 시골 공장에 도착하기까지 길게는 4시간, 길게는 24시간 동안 비행기를 찾지만 실재는 인상들이었다. 각각 기차들이 한국에서 만난 이유는 아사 25개국 외교장은 협회제 아사아 협회 대표가 튀르키예 네브세르주에 2022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했기 때문이었다. 네브세르주는 색색의 열기구가 터워 열곡을 떠다니는 장엄한 카파도키아를 두고 있다.



버섯 바위·우주 계곡-지구에 펼쳐진 '외계 풍경'

①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외전 풍경'



송암과 계곡 군교
적어판에 침착한 지형
연화 스카워트 촬영시

술이든 사람들이 손에
천연 요새 같은 바위가
교회와 벽으로 세번씩

돌굴 안 벽 가득 채운
프레스코와 진한 감동

공장에서 사공까지 자폭으로 30분 거리가. 본격적인 관광지는 다다르기도 전에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장막에서는 특색한 생김새의 바위들이 길도 없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다. 서부 영하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카파도키아를 여행하는 나중과주하게 되는 기묘한 풍경은 3000년에 걸쳐 빚어졌다. 세 개의 화산이 폭발하며 쏟아져 나온 용암과 재가 굳어지고, 바위들의 집사작용으로 인공된 모습이다. 초현실적인 풍경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작별하지 않아 순간순간 눈을 잃고 바라보게 된다.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문학 의문이 생긴다. 예전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살았을까. 정점이 살인 거대한 바위 밑에 쉼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요충처럼 웅장하며 힘을 잃지 불상을 깎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만 역사 속 카파도키아 사람들은 불안을 쏟아내며 지는 이불개 담담 것 같다. "오해라 좋아"

카파도키아 초기 정착민은 대부분 로마제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사람들이었다. 척박한 환경을 원망하는 것보다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에 안도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불회할 바위를 통렬히 파고들어 가신불당의 은신처를 만들었다. 길없이 늘어선 기암괴석은 그물개 교회와 성채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연이 조각한 바위에 인간은 생활 터전을 꾸렸다. 무너스고는 자연과 인간의 손길이 어우러진 이곳을 주목했다. 그러는 20년 전 카파도키아 지역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카파도키아와 바위는 한 몸이다. 피렌체의 귀넬리 로즈 벨라- 카파도키아 여행 코스에 온를 골라가면 이렇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은 투사타스. '요정의 굴뚝'이라고도 부르는 거대한 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수도사였던 성 시메온이 거처했던 교회가 있어 수도사의 삶이 고고도 열린다. 박해를 피해 파노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공동

체를 이었다.

과대에 아이 박물관에 가면 이들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기암괴석들은 산에 밀집한 바위를 뚫어 30여 개의 비밀 교회를 조성했다. 겹으로 보기에 카파도키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암괴석 마을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당시의 성직자들이 그린 프레스코화가 천장부터 벽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일생, 신성모독 등 성경에 기록된 장면들이 천장 천장과 벽을 수놓고 있다.

그림들은 아직도 대개가 선명하다. 통굴에 들어 갈 줄이 오지 않는 덕이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통굴에 살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초자연적 체험은 숙연한 마음이 될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보존 상태. 성화를 수장상태로 여긴 이들이 일몰 부분들 모두 잃어냈다. 다행히 4000명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내고 이들의 교회를 입안하면 비교적 온전한 상태의 성화를 만나볼 수 있다.

카파도키아는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거대한 지하 도시다. 카파도키아에는 20여 곳의 지하 도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카이타를르 동 20만 관광자에게 공개된다. 카이타를르의 지상에서부터 지하 80m 깊이로 조성했으며 1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7-6세기에 다들 잡았던 히타이트족에서부터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든 사람들까지 성경의 위업을 느꼈던 누구라도 땅을 파고 들어가 지하 공간을 개척했다. 어둡고 습하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앗간이었다.

카이타를르에는 총총히 연결된 300개의 다리를 중심으로 속소와 교회, 심지어 마구간과 무덤까지 있다. 가장 넓직한 공간 중 하나는 식당인데 각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식사 시간에는 이곳에 몰려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 통굴의 천장에 그물같은 당시 조각의 흔적을 보여준다. 통사에 양백한 열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오일인 물방 전사해소
- 카파도키아를 통해 촬영하는
- 카파도키아를 통해 촬영하는
- 카파도키아를 통해 촬영하는
- 카파도키아를 통해 촬영하는
- 카파도키아를 통해 촬영하는

지하 80m 거대 지하도시 - 그곳엔 1만명의 삶이 있었다

▶ **원주민들은 지하 4층까지 내려갈 수 있다.** 전장이 낮아 지저분 구부러진 오르막을 오르며 돌다이어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데도 초음이 어렵다는 등의 느낌을 받지 못했다. 별다른 장비 없이도 숨을 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드문드문 설치된 램프가 구름 틈새 햇빛을 뿜어 줄 수도 있어 답답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았다.

지하 도시는 본래 꼭박은 보편에도 충실했다. 주요 통로마다 두꺼운 바위벽 돌문을 만들어 냈다. 돌문은 언제든 닫아 열기도 쫓 쉽게 닫아 열 수 있다. 입구도 철저히 문처럼 닫아 바깥에 침입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램프가 땅 위로 새어나오는 것을 보지도 외부에서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여행자들은 숙소에서 카파도키아의 생생한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번화가라고 해도 딱딱하고 바위와 돌만을 개조한 전형적인 건물은 대부분 아니다. 이름에 'Cave'가 들어가지 않은 호텔들 몇몇이 아래를 정오에서 마른 밤의 역으로 고층층이대에 누워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가장 고가인 숙소도 40만 원 안팎이다. 내부부는 소박하지만 여행의 기억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카파도키아에서 바위와 돌문은 단순한 관광자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인의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돌문은 시계적 내부 공간-전도의 일정한 요건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 삶의 농성물을 보존하는 장교로 요긴하게 쓰인다. 자연이 내준 낭만적인 숙박 기능도 재능이다. 뛰어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맞닿은 곳으로 유명해진 여기에도 돌문이 한두 개대로는 없다. 열려줄 수 없었던 후 카파도키아 지역으로 옮겨와 돌문 앞에서 후속하는 것이다. 이 기간을 거친 돌문은 곡을 더 풍부하게 한다.

맛을 수 있는 카파도키아 요리

다시는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튀르크에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허브와 파프리카, 치즈 등 신선한 채소와 유제품이다. 메인 요리로 튀르크에서 파프리카, 닭고기, 양파, 양파의 구이 요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식이 식생활의 중심이다. 그래서인지 나뭇잎처럼 저열 채소를 즐겨 먹는 한국인도 많다고 할 것이다. 부드러운 양파를 양파와 파프리카 소스로 볶아낸 튀르크는, 가지 파프리카를 튀겨낸 샐러드는 튀르크에 전 통통하면서도 맛있게 느껴진다.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맛바야 하는 음식들은 다름 없이 맛과 배에 대표적이다. 이쁜 튀르크는 조금 더 큰 램프에 양념한 양파와 치즈를 넣고 15~20분 정도는 요리한다.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 전통은 튀르크에 크게 많은 모듬이다. 할 아랍에서 식재료로 사용된 튀르크에서 요리 후 부분을 채워 양파를 그릇에 담는다. 감이 붉을 내는 요리는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향긋한 파프리카는 식사의 즐거움을 더한다.

튀르크의 습관적인 와인 와인

튀르크에의 습관적인 와인은 카파도키아는 바위처럼 중심 모양과 풍부한 맛, 건조한 기후 등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자리와 중심이 뛰어난 와인을 생산한다. 특정이러한 카베르네 소비뇽, 사드네처럼 대량적인 품종이 아니라 튀르크에 토착 품종으로 와인을 만든다. 대표 와인 품종이 에르빈, 정모도도 인은 화이트와인은 쓴맛의 향이 달콤한 과일인 아리아가 특징이고, 새콤한 상이카도 크다. 소스는 맛을 높여 파는 사람이지만 분명 들어갈 것이다. 카파도키아는 채식 요리와 돌문 곁을 이룬다.

튀르크의 정모도도 튀르크 와인 에르빈은 튀르크에 와인을 생산하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와인을 자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튀르크에 와인은 튀르크에 향에서 만든 맛을 수 있는 튀르크 와인이다. 매년 이맘때 카파도키아의 워싱턴에서는 포도 수확을 축하하며 축제 연을 한다. 사람들은 포도밭과 거점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긴다. 이 기간에는 포도도 정모도를 순례를 하고 길에서 먹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저녁하고 같이 가벼운 계절, 가을이었던 카파도키아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카파도키아-집에서 한국관광객은 여행할 기회

travel tip

한국에서 카파도키아까지는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이스탄불 공항을 경유해야 한다. 국내선으로 횡승해 카파도키아 또는 카이세리공항에서 1시간 30분까지 50분 정도 소요된다. 2시간 정도면 주요 유적지를 둘러보기에 충분하다. 특히 온천으로 아름다운 파파라, 튀르크에 농업의 중심지이자 예술의 신비로움의 본산인 혼아름이 가파워 둘러보기에 좋다.



출입에 연결된 100개 버널
숙소교회, 식당, 무덤까지
삶의 양식 그대로 남아

바위와 돌문을 개조한
古城호텔도 색다른 경험

양파채소 닭이 구워낸
함아리 케밥이 대표 별미

에르빈 품종 화이트 와인
채식 요리와 잘 어울림



▶ 카파도키아 지방을 살린 황금 모듬
▶ 튀르크에의 채소 요리
▶ 카파도키아의 향이 들어간 케밥
▶ 튀르크에 토착 품종 에르빈
▶ 포도 재배에 인연이 깊은
카파도키아

